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8호 【루게 제24601호】 주제 103 (2014)년 7월 7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웅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3대혁명붉은기 웅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웅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표식비를 돌아보시면서 방어대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섬초소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섬방어대의 군인들이 몸은 비록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초소에서 군사부무를 한다는 긍지를



안고 군무생활의 나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섬방어대에서 철벽으로 다져놓은 군사시설물을 보시고 방어대군인들이 용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확고히 전면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군업적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포진지에서 방어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신 다음 포사격을 진행할 때

명령을 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포병들은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주의조국을 감히 압살해보려고 미쳐 날뛰는 원수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증오와 복수심을 가슴후련히 터칠 전투적기상을 안고 사격준비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하늘, 땅, 바다를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강철포신에서 세찬 화염이 뿜어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이 목표를 통쾌하게 명중타격하는것을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쏘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명포수, 명사수로 자라난 군인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대 1중대 1소대 1포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회장을 수여할데 대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의 기계제조훈련도 보아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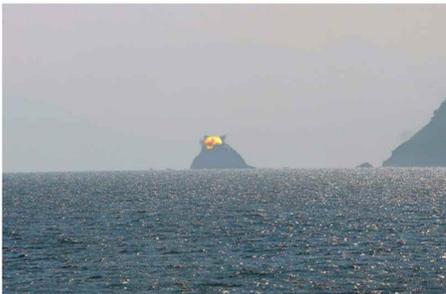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웅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의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닮은 군사지휘관, 정치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혁명가, 애국자들로 억세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건과 환경에 구애없이 언제 어느때나 반미교양, 계급교양에 힘을 넣음으로써 군인들이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모든것을 싸움의 견지에서 보고 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어대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힘있게 벌려 포기동전개시간을 단축하며 방어축성물과 화력진지, 기동로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웅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해상에 기여드는 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림으로써 신성한 조국땅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한 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웅도방어대를

명포수방어대로 만들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 1중대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 어 버 이 심 정 으 로

따뜻이 보살피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 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어대에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웅도방어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1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웅도방어대의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에 기여이 보답하고야말 불라는 맹세를 다지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기도 불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시기부터 민족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정책, 방안과 방도들은 가장 정확하고 공명정대했으므로 하여 오늘도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관관철을 최대의 승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6.15시대의 모든 성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으로 새로운 패권구도가 형성되고있는 동북아시아지역정세는 복잡다단하다.

렬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있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북과 남이 백백무익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에게 통략당하게 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구면을 열어나가는것을 애국여족의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이 극도에 달하여 사소한 언행이나 소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파멸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동족끼리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립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던 덜어놓고 적대하던 령정시대의 판면에서 결단코 벗어날 때가 되였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키고 싸워야 할 그 어떤 이유로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편복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응단을 내리야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출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부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요구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6.15, 10.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천년만년이 가도 외세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을 대변해줄수 없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오늘 외세개입으로 내전과 혼란에 빠진 여러 나라들의 참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열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제》와 《공조》를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애도,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

족내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다.

우리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다.

3.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편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신포프로세스》니, 《드레즈멘선언》이니 하는 허울을 쓰고 《제도통일》, 《홍수통일》을 추구하고있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북과 남에 근 70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을 의미한다.

동족이 장구한 기간 갈라져 살아온것만도 가슬러지는 일인데 북과 남이 자기의 체제만을 고집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는 없을것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방제안과 남측의 량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량방량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

4.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화해와 단합의 유리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는것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동족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비방중상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북남사이의 혈연적누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있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해제하고 접촉과 래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종북척결》소동으로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이 유린당하고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고취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속히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원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이면 성의있는 조치는 령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파시하게 될것이다.

우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립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승고한 책임감에서 출발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온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호응해나서리라 기대를 표명한다.

주제103(2014)년 7월 7일 평양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 받들어 이 땅우에 통일된 조국을 일떠세우자

조국통일을 숙원하는 민족의 가슴 속에 억년 지울수 없는 비운으로 새겨진 그날이 왔다.

한생을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로 불태우시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잊지 못할 7월 7일, 그날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도 흘러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7월의 그날은 찾아왔고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거룩한 사후지는 그리움은 스무해를 덧쌓았다. 그래서 다함없는 경모의 날과 날들이 흐르는 이해의 7월은 류다르다.

찬란한 태양이 내 조국강산에 더욱 밝게 빛나는 지금 온 겨레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의 어머니의 통일 애국의지가 비껴있는 불멸의 친필을 우려른다.

《 김 일 성 1994. 7. 7. 》

민족의 어머니의 애국용사가 맥맥히 살아있는 친필은 아홉글자, 허나 아홉글자의 글발속에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시고 그 실천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치신 전설적영웅의 고귀한 한생이 집대성되어 있음을 온 겨레는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언제인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1994년 7월 7일, 이날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김일성동지님의 념원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날이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렇다. 조국통일은 우리 수령님의 최대의 념원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의 중임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겨

잊지 말자,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업적을

레에게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 정력을 강그러 바치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지새우신 밤, 걸으신 길을 천으로 헤아리라, 만으로 헤아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에 남기신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통일애국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을 그리움의 눈물속에 다시금 새겨안는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조국통일운동의 그 복잡다단한 초행길에서 모든것을 지향하신 우리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승리로서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전군운동의 자랑스런 리정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넓은 도량과 뜨거운 민족애에 매혹되어 김구, 김구식을 비롯



한 완고한 우익민족주의자들까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갖은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구름처럼 평양으로 모여들었고 마침내 주제 37(1948)년 4월 19일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란봉공장에서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하에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분불류의 로고 속에 마련된 4월 남북연석회의는 미래와 그 주자들의 분렬주의적인 《단선단결》책동에 내려진 전민적적인 철수로 되었다. 감회도 새로운 주제 61(19

72)년 5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고 자신께서 오랜 기간 무리히오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조항, 한조항 설명해주시던 어머니수령님, 위대한 통일옹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분수령마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민족대단결의 불멸의 총신인 《조국통일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승을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정녕 눈물없는이 돌이켜볼수 없는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들을 심장으로 되새긴다. 오날도 잊지 못할 주제 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고귀한 력사의 친필은 그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명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활달한 친필로 이어졌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어머니수령님의 조국통일운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통일외지로 불타오르고있다.

주제 101(2012)년 3월,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복정의 불기둥이 불타오르던 엄중한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험한 최전방인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에 승업하게 세워져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실 불라는 결의를 가다듬으시었다.

그 칠의 신념을 간직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올해에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과 평화변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마련해주신 특정한 토대와 애국용사가 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외지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절세영웅의 고귀한 친필이 온 겨레를 통일위업실현으로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

남조선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심을 안고 그들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태양회 회장은 세상에 정지자로 떠난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주석과 같이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평등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절절한 정치가, 사랑과 믿음의 언덕으로 만민을 매혹시키신 위인중의 위인은 없었다고 칭송하고있다.

역사학교수 리홍수는 《김일성주석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린나이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험난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겪으시고 슬픔이라는 슬픔을 다 체험하시며 혁명투쟁을 버리시었다.

주교인 김창모는 신도들에게 주석님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가장 압박한 시기에 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우리 민족을 반일투쟁으로 불어넣으시었다. 그분의 혁명적 평등사상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항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해방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통일의 불꽃이 너성모임 회원 등진향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가 외세에 의해 분렬된 첫

날부터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분불류의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고 토로하였다.

통일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이야말로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생애라고 하면서 주석님께서 쌓으신 뜻을 우리는 그 길에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4.15통일선언 리명선은 주석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어제도 오늘날도 찬란히 빛나고있다고 찬탄하였다.

인론인 윤봉수는 우리 이 남민중은 어느 하루, 어느 한 시도 김일성주석님을 잊어본적이 없고 그분과 헤어져본적이 없다. 민족의 심장속에 있는 언제나 주석님께서 생애의 영원이 우리를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딱 치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진 가느다란 그리움과 경모심을 담아 남민중들은 《민족의 영원한 하늘》, 《영원한 태양》은 언제나 주석님께서 생애의 《통일의 서풍》을 비롯한 시와 노래, 도사들을 창작, 출판, 보급하고 《항일의 전설적영웅, 조국해방의 은인,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의 창건자, 우리 겨레의 존경한 어머니,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세계정치의 대원로》라는 글이 새겨진 인물을 배로하며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천양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시는 등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정은명동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러 조선의 시조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찾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북중시기도 하시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올해가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각께서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시는 등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정은명동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러 조선의 시조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찾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북중시기도 하시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올해가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각께서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시는 등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정은명동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러 조선의 시조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찾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북중시기도 하시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올해가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각께서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시는 등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서거 20돌

재일본 조선인 중앙추모대회 도교에서 진행

【도교 7월 5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0돌 재일본 조선인 중앙추모대회와 5일 도교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앞에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대회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김부총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총련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인원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지방위원회장과 고문들, 비전인 열성자들, 동료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애국가가 추락되었다. 허종만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머니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세월 총련인원들과 재일 동료들은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살아왔다

고 말하였다. 전체 총련인원들과 재일동무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영생기원의 한마음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총련의 조직자, 평등자이시고 재일동무들의 제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평등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절절한 수령,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사상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새 인류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피어난 항일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는 민족의 은인이시며 조국해방에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은 제국주의원한세력의 준연대 대결전에서 백전백승하시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 자주화위업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강철의 명장,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새기문 새길수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어머니수령님을 잊지 못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가 인민위업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만민을 한몸에 안으시어 원어버이사람으로 보살펴주시는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기에문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은 동서고금의 인류사에 투영되는 위인중의 위인의 한명이 고귀한 한생이였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민족대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세대부들의 유산으로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력사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흐르며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과 업적은 새기문 이어 영원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그는 20세기에 이룩있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해외교포들에게 사랑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은정 깊은 위대한 수령, 절세의 위인은 없었다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본땅에 끌려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무들에게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겨주시고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자주

독립국가에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참다운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꾸어주시고 애국애국운동을 주체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평등업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조국인민들이 허허머를 즐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해야 했던 어려운 그때부터 해마다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하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고 격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머니가 있어 동포사회에서 애국애국의 대가 훌륭히 이어지고 총련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계속 떨치고있는것이라고 밝혔다.

총련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킴에나가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생애의 전 기간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총련을 조국과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 본보기로 더욱 빛내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고 인정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 음의 양보도 없이 관철해나가는 인민들과의 대의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발히 벌여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막대한 자위적군사력과 천만인민의 일심단결의 력을 세상에 떨치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평등업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친어머니의 뜨거운 은총을 거듭 받아안은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들만 계시던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강성변혁하며 원수님께 충정을 다하는 길만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야 하는 길임을 확고한 신념, 애국애국의 정리로 가슴깊이 새기었다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제23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추모문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어김없이 관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평등의 유일중심으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애국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있다

총련인원들과 재일동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

절세 위인의 필생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 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조선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7월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더불어 겨레의 가슴에 통일의 신념을 더해주는 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주석님께서서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친히 보아주시고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었다.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 전설적 위인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한생이 어려웠다. 이날민중은 불멸의 이 글발을 우려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석님의 통일평등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주석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불행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수많은 통일문건을 제시해주시고 그 실천에 이 이끌어 주시었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 하나하나가 애국, 애족, 애민

정을 안고 주석님의 통일평등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그의 민족에는 수천수만갈래로 흩어졌던 애국의 작은 물결기들을 통일의 거창한 대가로 불려준 태양의 손길이였다.

진정 주석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친필은 민족의 평화변혁을 위한 거룩한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투철한 자주정신과 광복의 도량, 비범한 평등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오 승리의 한결을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님은 겨레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우리 민족은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을 영현토록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이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적이고 공평정대한 원칙과 방략들을 완히 밝혀주시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혁을 위한 사람은 위대하신 원수님의 평등을 총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어 주석님의 필생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언제나 앞장서겠다.

【조선중앙통신】